中國에서의 新出 考古資料 二種

金 元 龍

本誌一二〇號(一九七三、一二)에서 原城郡 法泉里 石槨墓出土의 靑磁羊形器를 紹介하며 東吳甘露元年(二五六年)墓出土의 同形 靑磁羊을 引用하였는데 日本의 六澤和光氏로부터 近着「文物」誌에 실린 四世紀初의 南京出土 同形器를 알려오며 法泉里 것이 三世紀 것보다는 이 四世紀初의 制와 같다고 指摘하였고 이어서「考古學報」所載의 遼寧省 南山根出土 遼寧式銅劍의 報告文의 寫本 一部도 보내주었다。모두 우리나라와 關係되는 중요한 새 資料들이기 때문에 함께 內容을 紹介해서 參考資料로 할까 하는 바이다。

一、南京 象山七號墓出土 羊形器

一九六五年 一月에서 一九七〇年 一月에 걸쳐 南京市 新民門外의 象山에서 東晋의 塼室墓 七基가 發掘되었다。이 一帶는 東晋의 豪族 王氏一族의 墓地며 一號墳은 王興之夫婦(各各 三四一、三四八年歿)、三號墳은 王丹虎(三五九)墓、五號墳은 王閩之(三五八年歿)、六號墳은 夏金虎(三九三年歿)의 무덤들이며 二、四、七號의 三墳만 年代가 확실치 않으나 夏金虎는 王興之의 繼母이며 이들이 모두 王氏一族이고 墓制가 같기 때문에 대체로 四世紀後半의 五、六〇年 사이에 建造된 무덤들이라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問題의 靑磁羊形器가 나온 것은 七號墳이고 이에 대해서는「文物」一九七二年 一一期에「南京象山五、六、七號墓淸理簡報」라는 南京博物館의 報告文이 실려 있으나 볼 수 없다。그러나 七號墳의 構造圖와 主要出土遺物은 一九七三年 日本에서 열린 中國遺物展目錄인「中華人民共和國出土文物展」에 실려 있어 參考로 할 수 있다。

七號墳은 약 四m×三·三m의 平面에 穹窿形天井을 가진 大形塼墳이며 西南向한 入口에 짧은 羨道가 달려 있다。遺物들은 羨道와 入口 가까운 쪽에 흐터져 있었고 羊形器는 入口 가까운 中心部位置에 놓여 있었다。

여기서 出土한 副葬品으로는 靑磁羊形器、靑磁盒、陶案、陶倚几、陶硯、陶盤、陶耳杯、靑磁香爐、靑磁唾壺、方形銅爐 등 靑磁資料가 많은데 問題의 羊形器는 高 一二·四cm、長一五·五cm로 우리 法泉里 것의 高 一二·五cm 長一三·七cm과 比하면 高는 같으나 길이가 一·八cm 짧다。(圖一) 그러나 細部를 比較하면 머리 위에 뚫린 구멍、콧등에 그어진 세줄기 금、다물은 입、둥근 點같은 口角、前·後肢위에 그어진 弧形陰線、비틀어진 것 같은 貧弱한 四肢、꼭지와 같은 꼬리、삐져 나온 듯한 큰 눈알、모두 法泉里 것과 꼭 같고、뿔이 좀 크고 허리의 翼形이 法泉里 것(圖二)보다 더 細密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틀릴 뿐이다。

한편 東吳古墳出土의 靑磁羊(圖三)과 象山晋墓羊을 比較해 보면 머리와 胴體의 線文、後肢의 渦文 등 東吳羊이 보다 抽象的 傾向을 보이고 있으나 四肢만은 晋羊보다 훨씬 寫實的으로 되어 있으며 그러한 兩者間의 差異가 二五〇年頃에서 三五〇年頃 사이의 약 百年동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至今 우리 法泉里羊을 이 두 中國羊과 比較하면 우리의 것이 象山古墳出土의 晋代羊과 酷似하고 있음이 一見 明瞭하며 거의 같은 時期、같은 窯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따라서 이 羊器를 낸 法泉里古墳은 그 年代가 三世紀가 아니라 四世紀의 어느 때에 該當될 것이라고 믿어지며 이것으로써 四世紀의 墓制의 一例와 土器들의 모습을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華南製 初期靑磁器가 法泉里까지 들어 온 經路로는 여러가지가 생각되나 四世紀에 樂浪、帶方故地에 남아 있던 中國系住民團과 華南과의 海上交通을 통해서 大同江口地方으로 먼저 들어와 거기서 交易 또는 戰爭過程을 통해 다시 中部韓國으로 運搬되었다고 보는 것이 合理的일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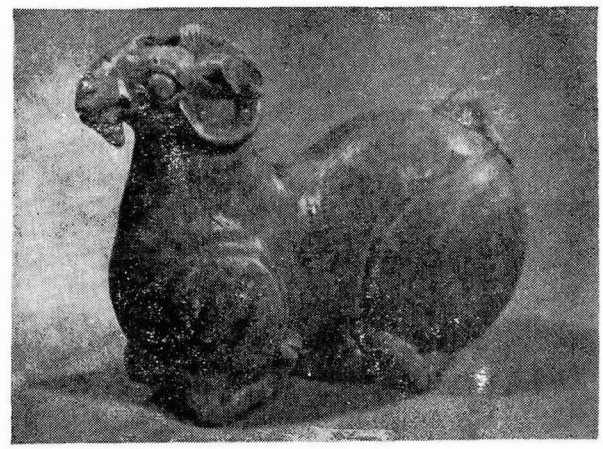

圖 1. 南京 象山七號墳出土 青磁羊形器(西紀 4 世紀)

圖 2. 原城郡 法泉里 古墳出土 青磁羊形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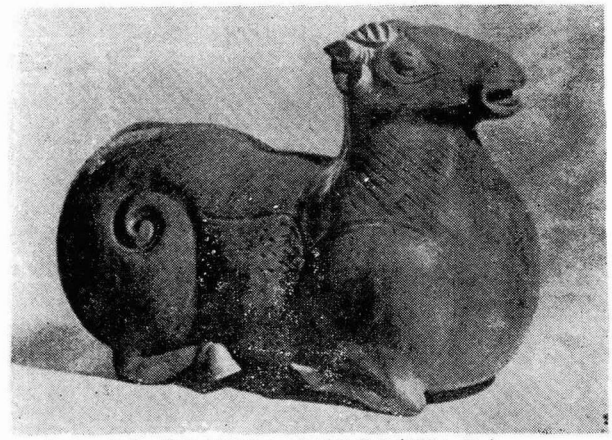

圖 3. 南京 東吳古墳出土 青磁羊形器(256A.D.)

二、遼寧省 南山根村 遼寧式銅劍出土 石槨墓

一九五八年에 遼寧省 朝陽縣 十二臺營子에서 出土한 典型的 遼寧式銅劍에 대해서는 筆者가 歷史學報 十六輯에 紹介하고 그것이 우리 細形銅劍 또는 韓國式銅劍의 直接祖型이 되었다고 指摘한 바 있다。그리고 이 遼寧式銅劍은 伴出한 多鈕細線文鏡의 文樣이 中國 戰國時代 鏡文의 要素를 加味하고 있는 點으로 그 年代上限이 西紀前五世紀頃이라고 보았고 그로서 遼寧式銅劍의 年代로 하였던 것이다。이 年代觀은 遼寧에서 滿洲로 퍼져 있는 石棺墓의 年代觀과도 符合되며 따라서 石棺墓(石箱墓)와 함께 시작되는 우리나라 青銅器文化의 上限年代가 大體로 그 時期일 것으로 보고 따라서 시베리아 타가르青銅文化의 開始期인 西紀前七百年을 넘지 못하고 우리나라 青銅器文化開始期는 일러도 西紀前六百年頃以前이 못된다고 보았던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年代觀에 대해서 金貞培氏는 우리나라 青銅器時代의 始作이 西紀前千年 以前으로 올라갈 可能性이 있음을 그의 「韓國民族文化의 起源」(一九七三年) 속에서 主張하고 있다。

그런데 一九六三年 六月에 前記 十二臺營子에서 머지 않은 같은 遼寧省 寧城縣 南山根村의 一〇一號墳에서 遼寧式銅劍 一口가 오르도스式銅劍과 槍、鏃、斧、戈등 銅武器 및 西周晩期에서 東周初期 즉 西紀前八—九世紀頃의 中國青銅器들과 함께 나와 「考古學報」 一九七三年 二期에 報告되었다。

이 一〇一號墳은 大體로 南北方向의 塊石築의 竪穴式石槨墓이며 槨의 길이는 三·八m 幅은 一端이 二·二三m、他端이 一·八m의 梯形이고 깊이는 二·四m、壁은 아래가 좁고 위가 넓어지도록 若干 傾斜되고 있다。天井은 四壁上部에 小石板들이 겹쳐서 남아 있어 小石板을 그렇게 짜서 天井을 덮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것은 不可能한 方法이며

元來 木板을 덮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바닥에는 石板을 깔았으며 木片의 殘缺로 元來는 木棺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東南隅 즉 槨의 넓은 쪽에서 頭蓋骨一部가 남아 있었다(圖四)。實은 이 무덤도 먼저 部落民들에 依해서 遺物이 전부 들어내어져 遺物들의 정확한 位置들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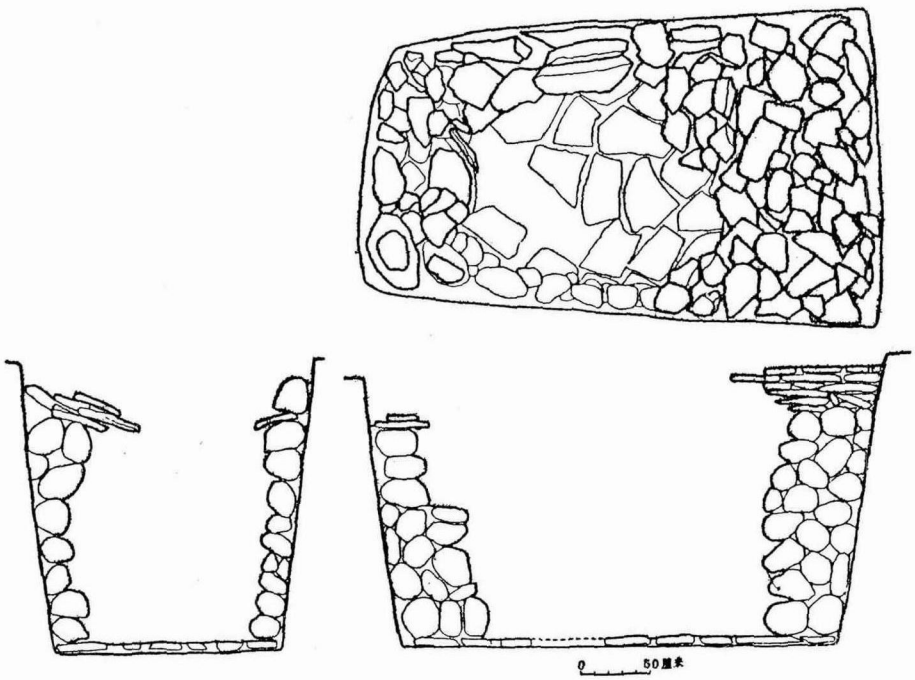

圖 4. 遼寧南山根村 101號墳 實測圖 (西紀前8—9 世紀頃)

수 없으나 거기서 나온 靑銅器는 總 五百餘點의 多數이며 그중에는 簋、鼎 등 典型的 西周末·東周初의 銅器들과 卜骨片도 있는가 하면 透彫動物文銅飾、長方形裂開口의 鈴附銅器、有柄銅劍 등 스키토—오르도스系銅器들도 섞여 있어、南北東西混合의 遼寧靑銅化文相을 보여주고 있고、그 年代는 西紀前 八五〇年頃에서 七〇〇年 前後頃으로 認定되고 있다。圖五는 靑銅武器들이며 問題의 遼寧式銅劍은 上列左端의 것이다。長은 三一·九㎝、劍身의 半以上은 槍形이고 下半은 一旦 좁아졌다가 불룩 해졌고 밑에는 짧은 꼬다리가 있다。이 銅劍을 十二臺營子出土 劍과 比하면 十二臺營子 것이 長 三五·六㎝로 若干 짧고 劍의 下半身이 十二臺營子 것보다 若干 홀쭉하다。

그것은 何如튼 遼寧式銅劍의 年代가 이 南山根村 新例로 그 年代가 적어도 西紀前 八、九世紀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出現年代는 더 올라갈 可能性도 充分히 있는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靑銅器 年代를 지금의 年代觀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일도 歸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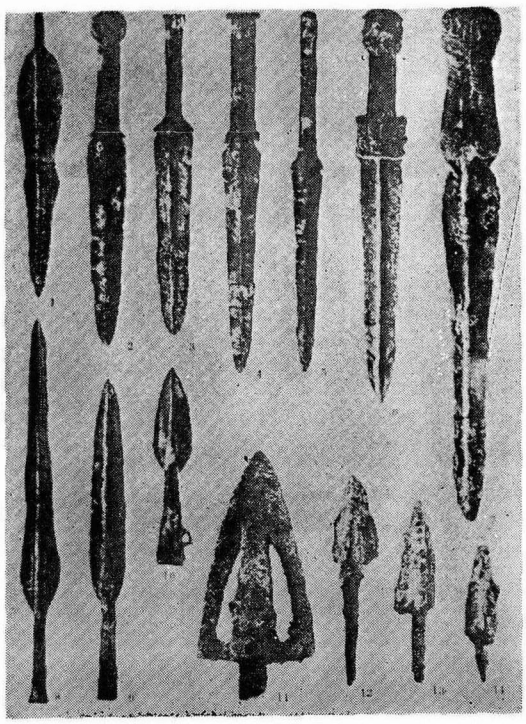

圖 5. 南山根村 101號墳出土 武器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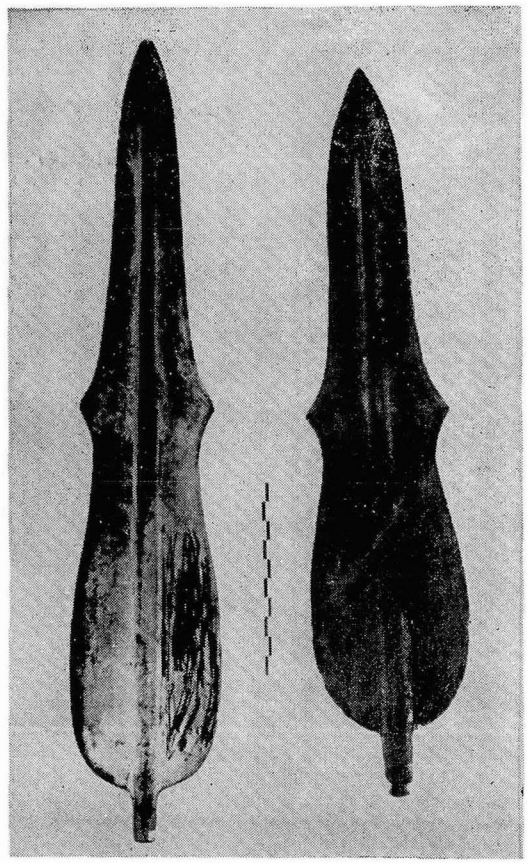

圖 6. 南韓出土 遼寧式銅劍

로운 編年을 確定한다는 것은 時機尙早이고 關連된 文化內容의 綜合的 年代考察을 土臺로 해서 妥當性 있는 資料와 證據의 蒐集에 于先 努力해야 할 것이다.

慶州 皇南洞 第百十號 古墳發掘調査略報

沈 載 完
李 殷 昌

一

慶州 味鄒王陵地區 淨化事業에 따른 古墳發掘事業이 進行되어 嶺南大學校 博物館에서는 一九七三年 六月 十三日부터 七月 二十三日까지 皇南洞 第百十號古墳을 發掘調査하였다.

이 第百十號古墳發掘調査報告書는 當局에 依하여 刊行되겠으나 우선 여기 그 槪要를 記述하고자 한다.

皇南洞第百十號古墳은 慶州市 皇南洞 垈三十一番地의 一號에 所在하고 있으니 곧 鷄林西北쪽 味鄒王陵 後側인 北쪽에 位置하고 있다. 이 一帶는 金氏王室의 根據地요 또 그 陵墓地일는지도 모르겠다. 그리하여 皇南洞、皇吾洞、仁旺洞、路東洞、路西洞 等 一帶에 大小古墳이 즐비하게 分布되고 있어 마침내 新羅古都의 一大古墳群을 形成하고 있다.

그리고 今般 發掘調査된 皇南洞第百十號古墳은 味鄒王陵 後便에 百七號、百八號、百九號、百十一號、百五十三號 等과 같이 相互 隣接하면서 分布되어 있다.

第百十號古墳은 第百號古墳부터 第百十四號古墳까지와 第百五十二號古墳부터 第百五十四號古墳까지 約十餘基의 大小古墳이 群集한 가운데